

한일공동크루즈 「PEACE&GREEN BOAT」 제 10 회 기념 공동성명서

~정말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해~

제 1 회 한일크루즈 「PEACE&GREEN BOAT」 는 2005 년에 출항했습니다.

이는 전후 60 년, 즉 한국의 일본식민지 지배 해방 60 년이 되는 해이며 한일국교정상화 40 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 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후변화협약인 이른바 “교토 의정서” 가 발효된 해 이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위기를 외치며 한일은 제 1 차 한류붐이 일어나는 한편 야스쿠니참배문제, 독도/다케시마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엄혹한 정치상황의 풍랑이 우리를 기다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환경과 평화를 내건 한일 NGO 가 힘을 합쳐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환경공동체의 초석을 동아시아에 구축해야 한다” 는 강한 의지를 공유하며 동아시아 대해원으로 항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 12 년간에 걸쳐 우리는 대화와 상호이해와 신뢰로 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10 회째인 한일공동크루즈를 실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국의 참가자는 실로 1 만명을 넘어 대형여객선을 이용한 독특한 직접교류를 하며 지금까지 없던 규모로 한일시민간의 우정을 쌓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고는 한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정치와 사회의 태도를 직시하는 비극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한국에서는 100 만명 촛불집회로 탄생한 새로운 정권이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탈원전정책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는 찬동과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아직도 후쿠시마 제 1 원전사고의 교훈을 무시하고 원전추진정책을 진행하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탈원전, 자연에너지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편 「PEACE&GREEN BOAT」 는 첫 항해 이후 4 회에 걸쳐 원폭투하지역·나가사키를 방문해 한일시민이 함께 직접 원폭피해자 분들의 증언을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7 월 7 일 유엔의 핵무기금지협약채택은 바로 우리의 오랜 영원의 실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일양국 정부는 “핵무기에 의한 억지력은 필요” 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우리는 양국 정부에게 인류를 향한 파멸적인 피해를 회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 이 협약에 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류에게 파멸적인 피해를 초래할 존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력을 다해 계속해서 행동해 가는 동시에 자연에너지추진, 평화, 기후변화 대책을 포함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포괄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년 평창올림픽, 그리고 2020 년 도쿄올림픽이 진정한 평화의 제전으로 최대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올림픽이 되도록 「PEACE&GREEN BOAT」 의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그 과정이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환경 공동체” 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여기에 표명합니다.